



오라클 사용자 정보교류의 장



최근 한국오라클 사용자그룹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사용자들끼리 활발한 정보 교환을 하고 있다. 사용자 그룹을 운영하고 있는 우용태 교수를 통해 사용자 그룹의 취지와 활동을 살펴봤다.

〈글/박민식 기자〉

오라클 사용자그룹(<http://dbleab.changwon.ac.kr/oracle>)은 창원대학교 데이터베이스 연구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오라클 정보광장을 중심으로 국내 대학, 관공서 그리고 기업체 전산실의 약 890여명의 오라클 전문가들이 모여 활동하고 있는 단체이다.

특히 삼성SDS나 LG-EDS와 같은 전문 SI업체에서만 100여명이상 가입하고 있다. 또한 오라클을 새로 배우고 있는 대학생들도 많이 참여하여 산학협동의 모범적인 모델이 되고 있는 단체이다.

현재 오라클 사용자그룹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주요 메뉴는 사용자 만남의 광장, 오라클 질의 응답, 오라클 사용자 메일링시스템, 오라클 공개 자료실, 오라클 관련 추천 사이트, 오라클 관련 메일링리스트, 오라클 Concepts 강의록, 오라클 SQL*Plus 강의록, 오라클 Admin 강의록, 오라클 Tuning 강의록, WWW과 오라클 연동기법, 오라클 용어 사전, 낙서장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대부분의 메뉴가 웹과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연동 모델로 개발되어 있다

사용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운영되는 질의응답

코너는 실무상에서 겪는 기술적인 문제를 도와주고 있다. 또한 특정 수신자 그룹만을 검색하여 선택적으로 메일을 보낼 수 있는 독특한 메일링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으며, 서비스 메뉴로 오라클 전문가에 대한 채용정보나 온라인상에서 깨어진 한글 메일을 살릴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하고 있다.

특히 본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데이터베이스연구실에서 대학원생들과 세미나를 통해 작성한 오라클 Concepts, SQL*PLUS, Administration, Tuning 강의록을 홈페이지로 제공하여 바쁜 업무관계로 영문 매뉴얼을 읽기 어려운 사용자나 오라클을 처음 접하는 학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 창원대학교 데이터베이스연구실의 우용태 교수는 "현재 전세계적으로 약 40여개국 오라클 사용자그룹이 활동하고 있고 키프러스, 불가리아 등과 같이 우리보다 정보화가 미흡한 나라에서도 운영되고 있는 실정에서, 국내 최대 소프트웨어 사용자 그룹이 이체서야 활동을 시작한 점은 오히려 때 늦은 감이 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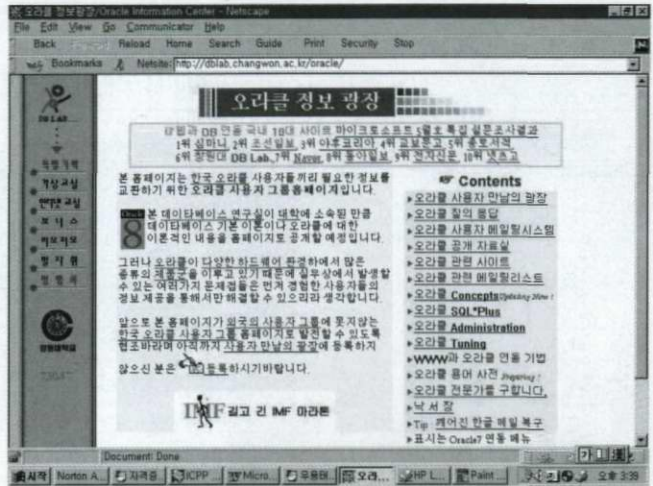
또한, 우교수는 "오라클 제품이 다양한 하드웨어

환경하에서 많은 종류의 제품군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복잡한 기술적인 문제는 오라클사에서 지원할 수 밖에 없지만, 실무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가지 사소한 문제점들은 오히려 사용자들끼리 정보 교환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효과적 방법"이라고 밝혔다. 오라클 측에서도 고객 지원측면에서 본 홈페이지에 운영에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가질 예정이다.

오라클 사용자그룹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 창원대학교 데이터베이스연구실은 국내에서 DB 연동 기술이 처음 소개되기 시작한 95년부터 웹과 DB연동 기술에 대한 연구를 시작한 곳이다.

현재 연구실 홈페이지의 약 30개 메뉴가 웹과 오라클을 연동한 프로그램에 의해 국내외 네티즌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이 연구실은 지난 2년동안 웹과 데이터베이스를 연동하여 창원대학교, 경남도청, 창원시청, 한국중공업 홈페이지를 연구 프로젝트로 개발하여 경남지역의 정보화 사업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우교수는 앞으로 본 홈페이지가 더욱 활성화되어



〈그림〉 오라클 사용자그룹 홈페이지 화면

국내 오라클 사용자들끼리 활발한 정보 교환을 통해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줄여서 효과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광장이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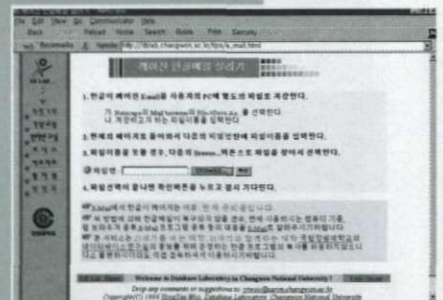
오라클 사용자그룹에 참여하고 싶은 분은 <http://dblab.changwon.ac.kr/oracle>로 가시면 언제나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TIP

오라클사용자그룹에서 제공하는 '깨어진 한글메일 살리기'

1. 한글이 깨어진 E-mail을 사용자의 PC에 별도의 파일로 저장한다.
가. Netscape의 Mail browser의 File->Save As...를 선택한다.
나. 저장하고자 하는 파일이름을 입력한다.
2. 오라클사용자그룹 홈페이지(<http://dblab.changwon.ac.kr/oracle/>)에 접속하여 '깨어진 한글메일 살리기'를 클릭한다
3. '깨어진 한글메일 살리기' 화면에서 파일명 입력란에 파일이름을 입력한다.
4. 파일이름을 모를 경우, Browse 버튼으로 파일을 찾아서 선택한다.
5. 파일선택이 끝나면 확인버튼을 누르고 잠시 기다린다.

* 본 서비스는 반드시 오라클사용자그룹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이용해야 한다.



〈그림 2〉 깨어진 한글메일 살리기 화면